

TLM법을 이용한 히스테리시스 자성체의 유한요소 해석

임창환, 김홍규, 정현교  
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

The Transmission Line Modeling Method  
for Finite Element Analysis of Hysteretic Material

Chang-Hwan Im, Hong-Kyu Kim, Hyun-Kyo Jung  
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, Seoul National University

**Abstract** - 자성체를 포함하는 자기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있어 비선형과 히스테리시스(Hysteresis)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특히 재료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유한요소법(FEM)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었다. 단순 반복법이나 Fixed Point Technique(FPT), M-iteration 법, 뉴턴-랩슨 법(Newton-Raphson) 법 등이 그 예이다. 이 방법들 중에서 뉴턴-랩슨법은 빠른 수렴 특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. 하지만 뉴턴-랩슨법을 이용하여 히스테리시스 재질을 해석할 때는 매 반복계산때마다 계 계수행렬(System Stiffness matrix)이 변화하기 때문에 요소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, 역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. 특히 히스테리시스 해석의 경우에는 주로 time-step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므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렬 계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. 최근 비선형 해석에서 TLM(Transmission Line Modeling)법이 도입되어 비선형 해석 시의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.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해석에 적용된 TLM법을 히스테리시스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새로 제안한다. TLM법은 뉴턴-랩슨법과 달리 각 반복 계산 때마다 계수행렬식이 변화하지 않고 단지 구동항만 변하기 때문에 행렬의 LU를 한 번 저장해 두면 forward와 backward substitution만 시행하면 된다. 따라서 요소의 수가 증가할 경우 TLM법을 사용하면 뉴턴-랩슨법에 비해 매우 큰 계산 이득을 얻을 수 있다. 본 논문에서는 TLM법을 히스테리시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간단한 모델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뉴턴-랩슨법과의 비교를 통해 TLM법의 효용성을 보인다.

1. 서 론

Ferromagnetic 재질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이 재질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비선형과 함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었다. 예를 들어 Fixed Point 법(FPT) 뉴턴-랩슨법(NRM), M(H) iteration법 등이 그것이다. 이 중에서도 뉴턴-랩슨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[1]. 최근 TLM법(Transmission Line Modeling Method)이 비선형 재질을 포함한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되었다. TLM법은 매우 안정적인 수렴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매 반복계산때마다 계 계수행렬이 변화하지 않고 구동항만 변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특성을 지닌다[2-4]. 본 논문에서는 TLM법을 히스테리시스 재질을 포함한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새로 제안한다. 히스테리시스는 자화의존 프라이자흐 모델을 이용하여 유한요소법에 적용되었고 coercive field를 이용한 constitutive relation을 사용하였다[5,6]. 해석을 통해서 TLM법이 뉴턴-랩슨법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특징을 지님을 검증하도록 한다.

2. 등가 전류 모델을 이용한 히스테리시스 모델링

그림 1은 초기자화곡선을 포함하는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다. Ferromagnetic 재료의 constitutive la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.

$$H = \nu(B)B + H_c \tag{1}$$

이 때,  $H_c$ 는 coercive field이다. 따라서 자기저항률(reluctivity)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질 수 있다.

$$\nu(B) = (H - H_c) / B \tag{2}$$

그러면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식 (3)과 같다.

$$\nabla \times \nu(B)B = J - \nabla \times H_c \tag{3}$$

이 때 식 (3)의 우변을 가상 전류항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각 상태(올라가는 상태와 내려가는 상태)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지는  $H_c$ 값만을 바꾸어 줌으로써 단순 비선형 문제로 바꾸어 풀 수 있다. 따라서 식 (3)을 풀기 위해서 뉴턴-랩슨법과 같은 비선형 해석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[6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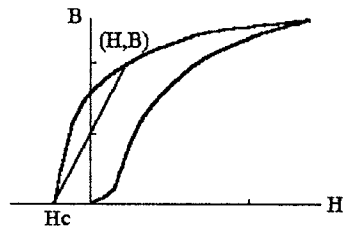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등가전류 모델  
Fig.1 Additional Equivalent Current Model

3. TLM법을 이용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

기존의 TLM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장에서는 TLM법에 대한 개요만을 실도록 한다[2-4].

본 장에서는 이방성 물질의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보다 일반적인 TLM법이 소개된다[4]. 그림 2는 TLM법의 topology를 나타내고 있다. 정자장 해석에서 계수행렬(stiffness matrix)의 (i,j)번째 요소는 식(4)와 같이 주어진다. 자기 벡터 포텐셜이 각 절점의 전압을 나타내고 구동항(forcing term)이 각 절점으로 들어가는 총

전류의 합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정의식 (5)에 의해서 삼각형 요소의 각 변(edge)은 두 개의 병렬 비선형 컨덕턴스(conductance)로 변환될 수 있다.

$$k_{ij} = \frac{1}{4\Delta} \nu_x c_i c_j + \frac{1}{4\Delta} \nu_x d_i d_j \quad (4)$$

$$G_{ijy} = -\frac{1}{4\Delta} \nu_y c_i c_j \quad (5)$$

$$G_{ikx} = -\frac{1}{4\Delta} \nu_x d_i d_j$$

이 때, 형상함수는  $N_i = \frac{1}{2\Delta} (b_i + c_i x + d_i y)$ 이다. 이 때 TLM법에 의해 그림 2의 비선형 회로는 그림 3에서와 같은 Norton 등가 회로로 변환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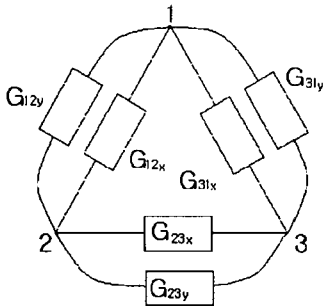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FEM요소의 비선형 저항회로의 변환  
Fig. 2. Conversion of a FEM mesh into a nonlinear resistive circui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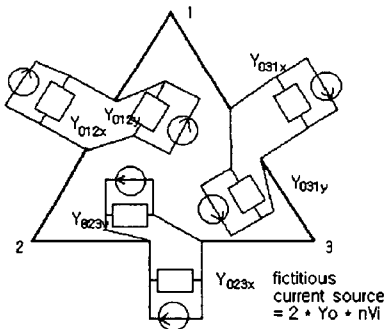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비선형 저항 회로의 Norton 등가회로의 변환

Fig.3. Conversion of the nonlinear resistive circuit into the Norton equivalent circuit

그러면 x,y각 방향에 대해서 각 회로의 송신단 (sending end)에서 식 (6)이 성립하고 수신단 (receiving end)에서 식 (7)이 성립하게 된다.

$$n V_{ix(s)} = n V_{ix(s)}^r + n V_{ix(s)}^i \quad (6)$$

$$Y_{\alpha ix(s)} (n V_{ix(s)}^r - n+1 V_{ix(s)}^i) = G_{ix(s)} (n V_{ix(s)}^r + n+1 V_{ix(s)}^i) \quad (7)$$

단,  $ij = 1,2,3, i \neq j$

자세한 계산 과정은 참고문헌 [4]에 잘 나타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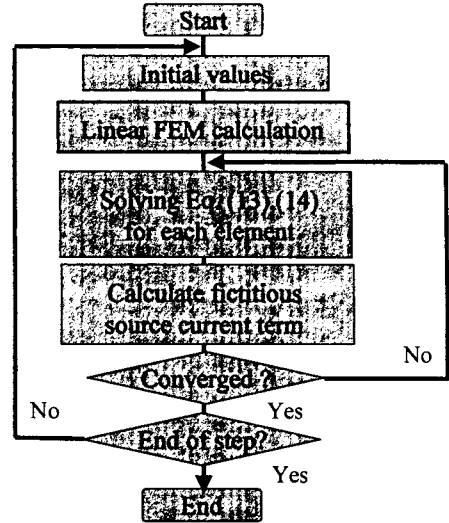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TLM법 적용 과정  
Fig.4. Flowchart for the TLM method

#### 4. TLM법을 이용한 히스테리시스 해석

그림 5는 히스테리시스 해석을 위한 간단한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. 편의상 해석 모델은 y방향으로만 자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자. 실제로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local coordinate를 사용함으로써 한 방향으로만 자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 모델이 충분한 일반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. 모델에서 x방향 자속 밀도 성분은 y방향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x방향 자기 저항률(reluctivity) 성분은 상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. 이 때 constitutive relation은 식 (9)와 같이 표현된다.

$$\begin{aligned} H_x &= \nu_x B_x \\ H_y &= \nu_y B_y + H_{cy} \end{aligned} \quad (9)$$

이 때  $\nu_x$ 는 선형 자기저항률이고  $\nu_y$ 는 비선형 자기저항률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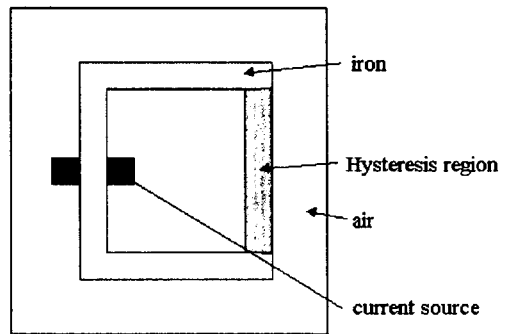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해석 모델  
Fig.5. Analysis Model

지배방정식 (3)을 갤러킨(Galerkin)법을 사용하여 정식화 하고 TLM법을 적용시키면 식 (10)과 같은 방정식이 각 요소별로 구해진다.

$$[K^e][A^e] = [f^e] + [g^e] + [f_{ie}^e]$$

$$\text{where, } K_{ij}^e = \frac{1}{4\Delta} (\nu_x c_i c_j + \nu_x d_i d_j) \quad (10)$$

$$f_i^e = \frac{\Delta J_0}{3}, \quad g_i^e = \frac{1}{2} H_x c_i$$

이 때, 형상함수는  $N_i = \frac{1}{2\Delta} (b_i + c_i x + d_i y)$ 이고  $[f_{ie}^e]$ 는 절점  $i$ 로 들어가는 가상 전류원의 전류값의 총합을 나타낸다. 이방성체에 적용된 TLM법을 사용하면  $x$ 방향 컨덕턴스는 선형이 되어 가상 전류원의 전류값이 0이 된다. 따라서  $y$ 방향 성분에만 관계된 식 (11)-(14)를 사용하여 TLM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된다.

$$G_{ij} = -\frac{1}{4\Delta} \nu_x c_i c_j \quad (11)$$

$$B_y^2 = -\frac{1}{4\Delta^2} \sum_{i,j=1,2,3} c_i c_j (A_j - A_i)^2 \quad (12)$$

$${}_n V_{ij} = {}_n V_{ij}^r + {}_n V_{ij}^i \quad (13)$$

$$Y_{oij} ({}_n V_{ij}^r - {}_{n+1} V_{ij}^i) = G_{ij} ({}_n V_{ij}^r + {}_{n+1} V_{ij}^i) \quad (14)$$

이 4 개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TLM법을 적용시키면 수렴된 해를 찾을 수 있다. TLM법을 유한 요소법에 적용할 경우 식 (10)에서 가상 전류항  $[f_{ie}^e]$ 만이 바뀌고 계수행렬은 변화하지 않는다. 따라서 반복계산 시 처음 계산에서 계수행렬의 LU를 계산하여 저장하기만 하면 이후의 계산에서는 단지 forward substitution 과 backward substitution을 시행해 주면 된다. 실제로 행렬 계산에서 LU를 계산하는 반복 조작수(operation count)는  $O(n^3)$ 인 반면 forward substitution 과 backward substitution과정의 반복 조작수는  $O(n^2)$ 이므로 절점의 수가 매우 커질 경우 매 계산 때마다 행렬의 LU를 계산해 주어야 하는 뉴턴-랩슨법에 비해 훨씬 빠른 수렴 특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. 그림 4는 TLM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다.

### 5. 해석 결과

그림 5의 모델에 정현파의 전류를 인가하고 한 주기 동안의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계산하였다. 총 40 time step을 사용하였고 수렴 조건은 뉴턴-랩슨법과 TLM법 모두 각 요소별로  $| \Delta A_i / A_i | < 0.0001$ 로 주었다.

해석 결과는 뉴턴-랩슨법과 TLM법이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그림 6은 처음 한 주기 동안의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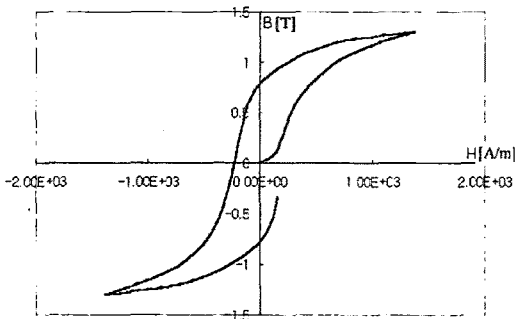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해석을 통해 얻은 처음 한 주기 동안의 히스테리시스 루프

Fig.6. Hysteresis loop obtained by simulation for the first cycle

그림 7은 TLM법의 속도 이득(speedup gain)을 나타내고 있다. (속도 이득 = 뉴턴-랩슨법 계산에 소요된 시간 / TLM법 계산에 소요된 시간). 그림으로부터 절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TLM법이 뉴턴-랩슨법에 비해 점점 더 빠른 수렴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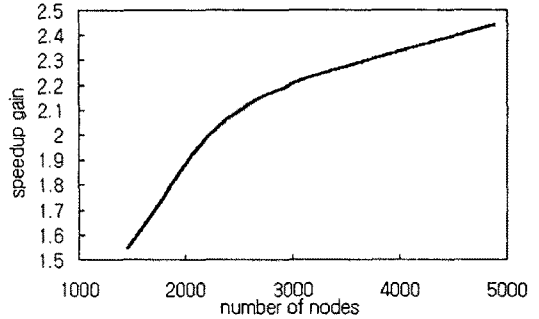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TLM법의 속도 이득  
Fig.7. Speedup gain of the TLM method

### 6. 결론

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해석에서 적용되어 뉴턴-랩슨법에 비해 훌륭한 수렴 특성을 보인 TLM법을 확장하여 히스테리시스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안하였다. 간단한 모델에 TLM법과 뉴턴-랩슨법을 적용하여 TLM법의 정확도와 속도 이득 특성을 검증하였다. 앞으로 TLM법을 히스테리시스 해석에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 뉴턴-랩슨법 이외의 방법들(예를 들어 Fixed Point Technique, M-iteration법 등)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 모델에 따라 어떤 방법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비교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### [참 고 문 헌]

- [1] Julius Saitz, "Newton-Raphson Method and Fixed-Point Technique in Finite Element Computation of Magnetic Field Problems in Media with Hysteresis", *IEEE Trans. on Magn.*, Vol.35, No.3, pp.1398 - 1401, 1999
- [2] J. Lobry, J. Trecat, and C. Broche, "The Transmission Line Modeling(TLM) Method as a New Iterative Technique in Nonlinear 2D Magnetostatics", *IEEE Trans. on Magn.*, Vol.32, No.2, pp.559 - 566, 1996
- [3] R E Knight and T J Flack, "Exploitation of Symmetry in 2-Dimensional, Finite-Element, Time-Domain Modeling of Induction Motors", *Proceedings of ICEM*, pp.1413 - 1416, 1998
- [4] 임창환, 김홍규, 이창환, 정현교, "이방성과 비선형성을 고려한 삼상변압기의 TLM-FEM해석", *대한전기학회 논문지*, Vol.48B, No.10, pp. 523-529, 1999년 10월
- [5] 김홍규, 홍선기, 정현교, "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고려한 전자기계의 유한요소 해석", *대한전기학회 논문지*, Vol.48B, No.3, pp.118-123, 1999년 5월
- [6] Francois Henrotte, Andre Nicolet, Francois Delince, Andre Genon, Pr Willy Legos, "Modeling of ferromagnetic material in 2D finite element problems using Preisach's model", *IEEE Trans. on Magn.*, Vol.28, No.5, pp.2614-2616, 1992